포터 Ⅱ·파비스…현대 상용차 출시 잇따라

포터Ⅱ 안전·편의사양 상품성 개선
준대형트럭 '파비스' 전방충돌방지보조 등 장착
2025년까지 친환경 상용차 17종으로

현대자동차가 상용차 신차를 잇따라 선보였다. 첨단 안전과 편의 사양으로 대폭 개선한 국민 화물차 '2020 포터 Ⅱ' 출시에 이어 준대형 트럭인 '파비스(PAVISE)'를 새로 공개했다. 또 카운티 EV를 선보이며 2025년까지 친환경 상용차 전동화 라인업을 17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대차 준대형트럭 '파비스'

◇사고 예방·안전성 높인 '2020 포터Ⅱ'= 현대차는 최근 소형화물차 포터에 첨단 안전 사양과 편의사양으로 상품성을 개선한 '2020 포터 Ⅱ'를 출시했다.

이 차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차로 이탈 경고' 등 안전사양을 모든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헤드램프를 기존 2등식에서 4등식으로 바꾸고, 주간주행등을 새로 적용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고객 선호도가 높은 운전석 통풍 시트와 크루즈 컨트롤, 8인치 튜익스 내비게이션 등을 새로 적용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전장부품 증가에 따른 배터리 방전을 방지하고자 용량을 약 11% 늘린 100Ah의 배터리를 탑재했다.

현대차는 2020 포터 Ⅱ에 요소수 시스템을 적용해 배출가스 규제인 '강화된 유로6'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밝혔다. 연비는 기존보다 3.1% 향상돼 9.9㎞/ℓ의 복합연비를 달성했다. 트림별 가격은 스타일 1675만원, 스마트 1720만원, 모던 1827만원, 프리미엄 1990만원이다.

◇준대형트럭 '파비스' 첫선= 현대차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나흘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체험형 상용차 전문박람회 '현대 트럭앤버스 비즈니스페어'에서 신형 트럭 '파비스'를 공개했다.

파비스는 중형 메가트럭과 대형 엑시언트 사이 체급으로 5.5~13.5t을 실을 수 있고, 운전석 공간은 동급 최대다.

최대출력 325PS의 7리터급 디젤 엔진이 장착됐고 일부 대형 트럭에만 들어가던 전방충돌방지보조와 차로이탈경보, 원격시동, 무시동히터 등 안전 편의사양이 선택 가능하다.

현대차는 장시간, 장거리 운행이 일반적인 트럭 운전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승차감과 안전성, 편의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파비스는 중세 유럽의 장방형 커다란 방패라는 뜻에 맞게 앞부분 그릴이 웅장한 느낌을 준다. 내부는 휴식공간이자 사무공간으로 설계됐다.

현대차는 8개 특장업체와 협업해서 농산물, 식음료부터 전자 제품, 산업용 기계까지 실을 수 있는 윙바디, 청소차, 크레인 등 파비스 특장차 10종을 이번 행사에 내놨다.

◇친환경 상용차 17종으로= 현대차는 이번 상용차 박람회에서 친환경 상용차 전동화 라인업 계획도 발표했다.

현재 판매 중인 전기차 1종, 수소전기차 1종에서 2025년까지 전기차 7종, 수소전기차 10종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트럭은 6종, 버스는 11종이다.

장거리 수송용 중대형 트럭과 고속버스는 수소전기차로, 도심 물류수송이나 승객 수송을 위한 중소형 상용차는 전기차를 기본으로 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다.

현대차는 스위스에 12월 수소전기트럭 10대 공급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1600대를 판매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엔 유럽 전역 등으로 영역을 확장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친환경 로드맵의 상징인 카운티 EV도 공개했다. 2017년에는 첫 전기버스 일렉시티를 내놨고 2018년에는 수소전기버스를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시범 운행했다.

현대차 '2020 포터 II'

현대 전기차버스 '카운티 EV'

카운티 EV는 128kWh 배터리가 탑재돼 서 1회 충전에 200㎞ 주행이 가능하고, 완충에 72분이 걸린다.

마을버스나 어린이 탑승 버스로 쓰이는 특성을 고려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눈길·빗길 안전 운전을 돕는 차량자세제어장치, 4륜 디스크 브레이크, 차량 후방 비상도어(어린이 버스용) 등을 적용했다.

마을버스로 운행하면 기존 디젤차보다 연료비를 최대 3분의 1로 낮출 수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현대·기아차에 '빌트인 전동킥보드' 탑재
차로 갈 수 없는 목적지까지 이동 가능

"자동차를 주차하고서 차에 탑재된 전동스쿠터(전동킥보드)를 꺼내 타고 차로는 갈 수 없는 마지막 목적지까지 이동한다."

현대·기아차가 이동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토탈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자동차 빌트인 타입의 전동스쿠터를 공개했다.

2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2021년 출시될 신차부터 이 전동스쿠터를 선택사양으로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전동스쿠터는 현대차가 2017년 공개한 전동스쿠터 콘셉트 모델 '아이오닉 스쿠터'의 성능과 디자인을 개선한 것이다.

차량에 탑재된 전동스쿠터는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활용해 자동으로 충전한다. 10.5Ah급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으로 약 20㎞를 주행할 수 있으며, 최고 속도는 시속 20㎞로 제한될 예정이다.

3단으로 접히는 디자인을 적용해 크기는 작고, 무게는 7.7㎏으로 현재 판매 중인 동종 제품 가운데 가장 가볍다. 최종 출시 제품은 일부 제원이 바뀔 수는 있다.

2017년 콘셉트 모델은 전륜구동 방식이지만 새로운 모델은 후륜구동으로 변경하고, 전륜에는 서스펜션을 적용했다. 무게 중심을 뒤쪽으로 배치함에 따라 안정성과 조종성이 높아졌다.

현대·기아차는 앞으로 회생제동 시스템을 추가로 탑재해 주행거리를 약 7% 늘리는 것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또 전동스쿠터와 차량은 물론 모바일기기의 연동 환경을 구축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동스쿠터는 차로는 갈 수 없는 최종 목적지까지 구간인 '라스트 마일(Last Mile)'에서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하나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현대·기아차 '추석 특별 무상 점검 서비스'

현대·기아차, 5~11일 추석 특별무상점검

현대·기아자동차가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는 5~11일 '추석 특별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2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현대차는 전국 22개 서비스센터와 1373개 블루핸즈에서, 기아차는 전국 18개 서비스센터와 806개 오토큐에서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기아차는 서비스 거점을 방문한 고객에게 ▲엔진오일·냉각수·브레이크·배터리·전구류·타이어 공기압 등 안전한 장거리 운행을 위한 필수 사항 점검 서비스 ▲워셔액 보충 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차 블루핸즈와 기아차 오토큐를 통해 점검을 희망하는 고객은 현대차 차량 관리 앱 '마이카 스토리'와 기아차 통합 모바일 고객 앱 'KIA VIK'에서 무상 점검 쿠폰을 다운로드한 후 기간 내 방문하면 된다.

현대·기아자동차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장거리 귀성길 운행에 도움이 되고자 무상 점검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현대·기아차 보유 고객에 대한 차량 점검 강화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제네시스 G80 '럭셔리 스페셜' 나온다

10만대 판매 기념 가솔린 3.3모델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기본 적용

제네시스 대형 세단 G80 스페셜 트림(등급)이 새로 나온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서라운드 뷰 모니터 등 기존 옵션 선택사양을 기본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2일 제네시스에 따르면 G80 누적 판매 10만대 돌파를 기념해 고객 선호사양을 기본으로 넣은 가솔린 3.3모델 '럭셔리 스페셜'을 출시한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LED 라이팅 패키지 등 기존에 옵션으로 선택했던 것과 헤드업 디스플레이, 서라운드 뷰 등 고객이 선호하는 사양을 기본으로 적용했다.

오픈포어 리얼 우드 내장재, 프라임 나파 가죽 시트, 고급 내장재로 구성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과 스포츠 외장 디자인, 19인치 휠, 콘티넨탈 타이어를 적용하는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 Ⅲ'를 선택할 수 있다.

G80 가솔린 3.3 럭셔리 스페셜 트림 가격은 5154만원(개별소비세 3.5% 기준)이다.

한편, G80은 2016년 7월 국내에 처음 출시된 이래 3년간 11만 3416대가 판매됐다. 2013년 12월 출시된 이전 모델(2세대 제네시스(DH))를 포함하면 누적 판매량은 21만 275대이다. 가솔린 3.3모델은 올들어 7월까지 판매된 G80 1만4014대 중 85.0%(1만1905대)를 차지했다.

올해 1~7월 국내에서 판매된 제네시스 G70, G80, G90은 3만6412대다. 작년 동기보다 1.4% 늘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예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9년 9월호

8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 소각장이 '문화기지'로, 부천아트벙커 B39
- '문화 리노베이션' 시작한 광주상무소각장

문화도시, 도서관이 미래다⑤
현대도시의 '판테온'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

워라벨시대, 문화관광이 뜬다⑤
걸음걸음 문화에 취하는
서울 세종로벨트

기획-영호남 산악인 중국 하바설산 등반 동행기-上
7시간 만에 도착한 하바설산 입구

예향 초대석
옛 그림 안내자, 미술평론가 손철주
"마음을 실으면 그림이 느껴져요"

문화 화제
이 시대 명창 탄생의 무대
제 27회 임방울 국악제

2030이 문화를 즐기는 법
온몸으로 느끼는 능동형 소비

가을 축제
떠나고 싶은 마음 한가득
관광전남의 9월 축제들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㊹
지라시, 연예인을 저격하다

강제윤 시인의 남도의 섬과 토속음식⑧
그리움의 맛이 이럴까?
여수 금오도 '성게알찜'

예향이 만난 이 사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김수영
광주 공연, 현대무용계 대모 김영순
올시즌 특급 소방수 타이거즈 투수 문경찬

트렌드 따라잡기㉒
소신 있게, 알뜰하게 더 편하게
밀레니얼·Z세대의 새로운 소비 스타일